

오월 시학과 포에톨로지(Poetology) ‘오월광주’

전동진*

목 차

1. 서론
2. 포에톨로지 ‘오월광주’
3. 오월 시학의 가능성
4. 언어적 행위의 위상성
5. 광주 정신과 텍스트 위상학
6. ‘오월광주’의 장소화
7. 결론

| 국문초록 |

‘오월광주’는 ‘오월’이라는 시간과 ‘광주’라는 공간을 합하여 장소화한 위상학적 명칭이다. ‘오월광주’에 펼쳐진 ‘열흘의 공동체’는 절대 공동체였다. 언어 역시 처음 등장한 것인 까닭에 시학도 새로운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그 열흘의 공동체와 함께 언어 역시 현실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오월의 언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의사소통의 수단은 아니다. 서정시가 추구하는 목적의 언어도 아니다. 언어 자체가 ‘앞’이며 ‘함’인 수행의 언어이다. 언어의 수행성을 동력으로 삼아 현실 너머로 지향할 수 있는 글쓰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위상적 글쓰기는 구조를 넘어서는 글쓰기이다. 오월광주는 정치적 사건에서 언어적 사건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을 번곡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실체적 진실 곧 사실을 밝혀내는 데 힘을 모았다. 이제는 미학적 진실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오월의 언어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열흘 공동체의 실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오월의 언어에 대한 다가섬을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통 시학의 대위적인 자리에서 반시학으로서 오월 시학의 면모를 탐색해야 한다.

오월 시학에 접근하는 동력은 ‘언어의 행위’ 곧 강력한 의식류의 발생에서 얻을 수 있다. 언어적 행위는 주관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의 통합적 지향을 통해 경험적 진실을 획득한다. 이렇게 열린 의미의 지평을 입체화할 때 우리는 위상학적 장소를 획득할 수 있다.

위상학적 장소의 심연에 흐르는 것이 정신이다. ‘광주정신’은 어떤 역사적인 왜곡과 질곡 그리고 시선의 변화에도 도도히 흘러왔다. 정신의 힘은 지향성을 통해 유연하게 흐른다. 광주 정신의 유연성이 플롯을 통해 양식화할 때, 다채로운 이야기는 한결같은 지향을 갖고, 하나의 정신은 다채로운 삶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함께 따로’ ‘따로 함께’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형성하는 장소(언어)를 통해 새로운 장소(언어)를 직조(織造)하고, 모전(毛氈)하는 것이 ‘포에톨로지(poetology)’이다. 가장 입체적이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거대하게 펼쳐지는 장소가 이러한 포에톨로지가 가장 입체적이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거대하게 펼쳐지는 장소가 포에톨로지로서 ‘오월광주’다.

주제어 : 포에톨로지, 오월광주, 오월 시학, 광주정신, 위상적 장소, 위상학, 열흘공동체, 수행언어, 반시학, 오월언어

1. 서론

언어는 문화예술의 토양이면서 근간(根幹)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자체가 너무 강렬할 때, 그 현상의 바탕이 되는 실재(實在)에 대한 탐구는 등한시하기 쉽다. 80년 오월을 다룬 연구가 언어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80년 오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열흘 동안의 사태들과 기록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를 반복했다. 열흘 동안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역사적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언어적 사건’, ‘언어적 사태’로 보면 좀 더

다른 의미와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시학은 문학을 논하는 담론 중에서 학문적 엄밀성에 대한 지향의 강도가 높은 편이다. 미학은 회화나 음악과 같은 직접성의 예술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시학의 역할은 문학과 같은 간접성의 예술이 아름다움(미적 효과)을 발현하는 통로(작용)를 언어적으로 조명한다. 서시학은 이야기의 시학인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시의 시학, 극의 시학, 독서의 시학과 같은 용어가 가능하다¹⁾.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학이란 말은 아직 미확정적인 상태이고,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²⁾는 지적은 타당하다.

시학에 대한 논의, 문학 작품에 대한 시학적 논의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언어적 아이러니’가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성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의 작용을 이성이나 논리적 영역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데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학문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언어적 불일치(모순)’가 시학을 여전히 미확정의 용어로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시학은 현실의 언어를 기반으로 삼아 학문적 규정성을 획득하려고 했고, 반박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기획들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진단은 많은 연구자가 공감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측면에서 시학의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 역시 기존의 시학과 언어적 기반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로 남겨졌다.

시학의 학문적 엄밀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존의 시학

1) 다비드 폰텐, 『시학』, 동문선, 2001, 7-13쪽.

2) 다비드 폰텐, 같은 책, 7쪽.

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시학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학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전 시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 시학이 가장 고차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예술 언어의 학문적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마주 보면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시학이 필요하다. ‘다른 시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한 시학이라는 의미이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공동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품고 있는 ‘다른 공동체’가 하나 있다. ‘오월의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5·18이 우리 근대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갖는 의미의 핵심은 이 절대 공동체의 체험일 것이다. 그곳에는 사유재산도 없었고, 목숨도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었고 시간 또한 흐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중생의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고 개인들은 융합되어 하나로 존재했고 공포와 환희가 하나로 얼크러졌다. 그곳은 말세의 환란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새로 태어나는 태초의 혼미였다. 그런 곳은 실제로 이 땅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³⁾

80년 오월에 열흘 동안 광주에서 펼쳐졌던 소위 ‘열흘의 공동체’는 인류의 역사에서 한번도 출현한 적이 없는 공동체였으며, 앞으로도 펼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동체이다. 현실의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열린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기존 공동체에서 획득한 가족의 관계, 사회적 신분, 지식의 유무 등이 순식간에 무화되고, 모두에게 생전 처음인 낯선 공동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공동체가 열린 것이다. 그 열흘 동안, 일상인들은 시민군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그 공동

3)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2005, 99-100쪽.

체에서 일생을 살았고, 생을 마감했다. 이 열흘 동안의 생은 꼭 죽은 자들의 것만은 아니다. 살아남은 자 중에서도 이 열흘 동안의 삶을 ‘다른 생’인 것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경우 시민들은 언제부터인가 각목을 들고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⁴⁾

20일부터 많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중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싸웠고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는 참가자 중 수없이 많으나 증언에 간혹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⁵⁾

‘오월의 시학은 5·18의 복원을 의도하지 않는다. 소격화된 것을 원래의 살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5·18’로부터 현실 세계를 소격화함으로써 ‘열흘의 공동체’와 현실 공동체를 마주 보게 해보자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오월광주’는 시간과 공간이 결합한 위상학적 명칭이다.

2. 포에톨로지(poetology) ‘오월광주’

시적 글쓰기, 시적 언어가 전통적으로 담당해 왔던 역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운 언어를 찾아내 기존 문화에 공급함으로써 언어적 긴장을 새롭게 유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적 언어가 담당해온 생성의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소멸의 기능이다. 정화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늘의

4) 현사연, 『5·18 사료』, 1990a, 390쪽.

5) 최정운, 같은 책, 152쪽.

별은 수 만 가지 사연에 둘러싸여 있다. 수 천만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무수한 신화가 직조되어 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들이 달라붙어(펠트(felt), 모전(毛氈)) 있다. 그 이야기들로 별은 언제나 새로운 빛을 발한다.

별은 이야기를 중성화(무화)시킨다. 시는 별처럼 언어를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시적 언어가 그 소임을 다하는 소멸과 생성 사이에는 두 겹의 허무가 자리한다. 두 겹의 허무 사이로 두 겹의 결핍이 흐른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윌덜린은 시의 본질을 시작(詩作)하고 있다. 그러나 무시간이나 들어맞는 개념이라는 뜻은 아니다. “시의 이러한 본질은 특정한 시간에 매여 있다. 그러나 이미 있는 시간에만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윌덜린이 시의 본질을 새롭게 건설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새로운 시간을 규정하게 된다. 이 시간은 가버린 신들과 다가올 신들 사이에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야말로 궁핍한 시간인 것이다. 왜 그러한가? 이 시간은 가버린 신이 이제는 없다는 점과 다가올 것이 아직도 없다. 그러기에 두 겹의 허무와 결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⁶⁾

시의 본질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시인들은 특별한 교양자로서 에피고넨 즉 모방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가다머는 그래서 “좋은 시 한 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으나, 바로 그 때문에 시인이 되는 것은 어려웠다.”⁷⁾고 말한다.

과거의 신과 미래의 신이 동시에 부재하는 두 겹의 허무, 시와 시간이 없는 두 겹의 결핍이 두터운 중성의 층으로 자리한다. 이 허무와 결핍에 성큼

6) 마르틴 하이데거, 「윌덜린과 시의 본질」, 김진국 편역, 『문학현상학』, 대방출판사, 1983, 74쪽.

7)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진리와 방법 I』, 문학동네, 2011, 168쪽.

발을 내딛는 것은 최초의 자유를 맛보는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시작(詩作)’이며 시인이 시작(始作)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소를 개시하는 것이 ‘포에톨로지(poetology)’의 역할이다. 포에톨로지는 포에틱(poetic)과 토폴로지(topology)가 결합한 말이다. 서사적 공간 배치가 선적(線的)이라면, 시적 공간 배치는 입체적이고 다양성을 지향한다.

동양에서 천경의 좌표는 28수의 별자리로 표시한다. 북극성을 중앙으로 삼아 북에 자리한 별자리의 이름은 ‘허(虛)’다. 서양 별자리에서 ‘사자자리’, ‘작은 개 자리’가 이쯤에 해당한다. ‘작은 개 자리’의 일등성이 프로키온이다. 프로키온은 우리에게는 하나로 보이지만 두 개의 별이 겹쳐져 있다. 이 두 별의 걸리는 물리적 상상력을 벗어나 있다. 거대한 항성 안에 그보다는 작은, 그러나 우리의 태양보다는 큰 항성이 하나 안겨 빛나고 있다.

위상학적으로 서술한 시는 허무를 두 겹의 허무로 덮을 수 있고, 결핍을 두 겹의 결핍으로 채울 수 있다. 결핍을 감싸면서 동시에 결핍으로 감싸일 수 있는 것이 시적 언어의 위상학적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언어는 세 겹의 허무와 게 겹의 결핍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 개시된 장소가 언어로 번역 불가능할 때, 그 장소는 시적 언어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80년 오월 열흘의 공동체가 열린 장소의 언어, 그리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지향된 공동체는 기존의 언어를 벗어나 있었다.

의미의 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시간, 공간, 인간이다. 문학이 장르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장르적 정체성을 지향한다. 서사의 경우 시간을 바탕으로 삼아 ‘공간’에 의미를 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서정의 경우는 공간을 바탕으로 ‘시적 순간, 본질적 시간’을 포착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극의 경우는 변형된, 무대화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그런데 시간, 공간, 인간이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는 기존의 장르적 역할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80년 오월 열흘의 공동체가 그 대표적인 장소에 해당한다.

현재 공간화 운동은 20세기의 분기된 이론사를 가로질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파노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인문학이 장소를 다루는 기술로 부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거기서는 원래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말이 관건이 된다. 그것을 칭하기 이해서는 이론가의 말보다는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나을 듯하다.⁸⁾

서사의 경우, 공간을 특별한 장소로 무겁고 장엄하게 규정하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위력적이다. 그런데 80년 열흘의 공동체는 신의 부재와 함께 가장 뜨겁게 열렸지만, 언어의 부재로 가장 위태롭게 열려 있었던 장소이다. 신화의 공간처럼 장중하고 장엄한 이야기로 담아내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너무도 압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새롭게, 가볍게, 경쾌하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요구했다. ‘공간 담론’에서 새롭게 서정시에 주목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의 위상적 특성과 연관이 깊다. 공간에 대한 서정적 기술 전략을 통해 열리는 공간은 새겨지는 공간이 아니라 새롭게 지워지는 공간이다.

모든 것이 깊은 존재로 되돌아가고, 두 영역 사이에 무한의 통로가 있는 공간, 모든 것이 죽은, 하지만 죽음이 삶의 지혜로운 동반자인 공간, 두려움이 황홀함이고, 찬양이 탄식하고, 탄식이 예찬하는 공간, “모든 세계가 그들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진정한 실재성을 향하는 것처럼 서둘러 다가가는”

8) 크누트 에벨링, 『현장-공간철학에서 장소이론으로』, 슈테판 귄첼 엮음, 『토폴로지』, 에코리브로, 2010, 416쪽.

공간 자체, 보다 거대한 순환과 끝나지 않는 변신의 공간은 시의 공간이다. 분명 시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오르페우스의 공간, 시인은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 듣는 자를 침묵의 무게로 만드는 것처럼 그를 틀림없는 입으로 만드는 상처의 내밀성과 하나가 될 때에만 이르게 되는 공간, 그것은 작품, 하지만 근원으로서의 작품이다.)

우리는 모두 세 방면에서 공간을 개시할 수 있다. 오르페우스의 공간이 절대적 시의 공간, 근원으로서의 시적 공간이라면 프로메테우스의 공간은 ‘난생’ 처음인 최초의 공간, 첨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에피메테우스의 공간이 있다. 이것은 후각자의 공간으로서 이야기의 공간이다. 이 세 가지 공간을 ‘짜고’, ‘따고’, ‘엮고’, ‘밟아(felt, 毛氈)’ 기존의 공간을 지우고, 그 경계에 ‘무의 공간’을 새롭게 여는 것이 ‘시(詩)’다. 지어져서, 짜여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공간을 생산하는 공간, 한 올 한 올 작은 이야기들을 밟아 두터워지면서 넓어지는 팻트, 이것이 위상학적 시적 공간 곧 포에톨로지이다. 오일러는 두 개의 섬을 잇는 7개의 다리를 8개로 늘림으로써 모든 다리를 한 번씩 건너서 출발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책의 위상학을 구축한다. “코니히스베르크의 다리에서 미학적인 산책 내지 오르페우스의 모험을 포에톨로지적으로 그려내는 작업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 만들어 내기 위한 문제가 되었”⁹⁾다.

토폴로지에 방점을 찍을 경우 포에톨로지는 공간을 생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포에틱에 방점을 찍는다면 언어를 생산하는 언어가 될 것이다. 사라지는 것을 한 발 앞서 사라지게 하고, 최선의 공간으로 비워냄으로써 근원적 공간에 다가서게 하는 것이 포에톨로지의 역할이다.

9) 모리스 블랑쇼, 같은 책, 2010, 203쪽.

10) 블라디미르 벨민스키, 「코니히스베르크의 다리 -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공간 포에톨로지」, 슈테판 권첵 역음, 『토폴로지』, 에코리브로, 2010, 241-2쪽.

말 가운데, 시는 근원에 가까워진다. 근원적인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이러한 순수한 무력감을, 불모의 말 많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의 과잉을, 결코 작품이 아닌 것의, 작품을 허물고서 그 가운데 끝없는 무위로 되살리는 것의 과잉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¹⁾

시적 언어가 공간을 개시하는 힘은 능동성이 아닌 수동성의 힘이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전체를 내어맡길 수 있을 때, ‘순수한 무력감’, ‘불모의 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잉’을 지나 근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아름다운 옷을 보고 옷감의 종류에 몰두하는 이는 옷을 만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아름다운 시를 보고 시의 근원을 파악하는 사람은 시인일 가능성이 높다. 시는 배경이 되는 공간을 투명하게 비움으로써 언어의 입체성을 더한다. 시의 표면에 등장하는 시어는 그 자체의 의미가 목적이 아니다. 그 바탕이 되는 공간의 깊이를 가늠하는 역할이 더 커야 한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그 아름다움(그 자체가 발산하는 빛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어둠의 깊이를 더하는 것과 비슷하다.

80년 광주는 그 어떤 사건보다 짙은 어둠의 시간 속에 잠겼다. 그러니 거기에서 떠오르는 언어는 어떤 언어보다 빛날 수 있었다. 그 빛나는 언어는 가장 깊은 부끄러움과 무거운 죄책감을 그림자로 삼아야 한다. 그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당도해보지 못한 오르페우스적 심연에서 들리는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80년, 오월광주에 개시된 열흘의 공동체가 ‘포에 톨로지’로서 작동할 때,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의미의 빛을 발산하면서, 채색된 욕망을 무(無)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11) 모리스 블랑쇼, 같은 책, 38쪽.

3. 오월 시학의 가능성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할 때 흔히 드는 것이 언어에 대한 태도, 혹은 언어의 태도이다. 비문학적 글쓰기는 언어를 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종류의 글쓰기는 독자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문학적 글쓰기는 언어를 수단이라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다. 문학적 글쓰기라고 해서 똑같은 강도로 언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소설과 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예술적으로 느껴지느냐는 물음에 대부분은 서정시라고 말한다. 소설과 수필을 놓고 똑같은 질문을 하면 아마 소설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산문은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서정시에서는 언어가 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수단으로서의 언어와 목적으로서의 언어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장소가 소설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문학의 장에서만이라도 언어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학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았다는 혐의를 질게 받는 것이 소위 ‘참여문학’이다. 예컨대 소위 ‘민족 문학’ ‘노동 문학’ ‘통일 문학’이라고 분류되는 작품들을 논하는 자리마다 논자들은 말머리처럼 이런 혐의를 시인하는 발언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 작품들의 문학성은 차치하고서.....”, “이들 작품의 문학적 성취는 논의의 장을 달리해서 살펴볼 것.....”, “이들 작품의 문학적 성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의의가 없지 않아서, 살피지 않을 수 없어서 논의를 한다는 말머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학의 장에서만큼은 거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언어’마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언어를 바라보는 문학 담론의 전통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예술로서의 문학은 미(美)를 추구한다. 그 ‘미(美)’를 판별하는 시

선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문학은 다채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미(美)’의 기준을 다변화하자는 것도 말만 앞서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세계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문학에서만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19세기에 만들어진 낭만주의적인 시선으로 문학을 바라보고 있다. 어쨌든 아름다운 시로는 김소월의 것을 추켜든다. 이런 전통은 구조주의를 거치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랑시에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구조주의 시대는 특정한 적확성(的確性), 이른바 “문학성”이라 명명됐던 고유한 글쓰기 용법에 입각하여 문학을 정의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글쓰기는 순수한 기표적 물질성에 도달한 언어 이상의 무엇이다. 글쓰기가 언어가 지닌 모든 속성의 전도를 의미하며, 부정확한 용법의 균형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문학성”을 문학을 가능케 하는 언어의 지위로 명명하길 원한다면 구조주의적 시각과 반대로 문학성을 이해해야 한다.¹²⁾

새로운 움직임이 갖게 된 우리의 몸에 맞는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글쓰기를 구성하는 것은 문학이 할 일이다. 이것이 문학의 정치이다. 허울뿐인 문자 민주주의, 화석화된 ‘글쓰기에서 화석화’라는 “침묵”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행동 이전의 시, 모든 방향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공동 신체의 조화를 노래하는 언어 이전의 시의 기획”¹³⁾이 시작된 곳이 바로 80년 오월 광주인 것이다.

‘미의 보편성’이라는 용어는 가능한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근대 이성은 가능성 쪽에 더 큰 무게를 두었던 것 같다. 미는 보편성보다는

12)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28쪽.

13) 자크 랑시에르, 같은 책, 55쪽.

특수성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한층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학은 예술의 영역에 속하지만, 완전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소격화한다면, 문학은 가장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 예술의 정수까지 단절 없이 걸쳐져 있다.

이것은 마치 무지개와 같다. 무지개는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색깔로 펼쳐진다. 보랏빛에서 시작해서 붉은빛으로 마감하는 무지개 사이에 오만가지의 색깔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통상 일곱 색으로 구분한다. 시학은 일상생활의 언어와 예술의 언어 사이에 무지개와 같이 펼쳐진 언어의 색채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언어적 욕망의 산물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시학의 탐색 대상은 ‘사’가 아니라 ‘언어’이다. 시학이 ‘사’를 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글쓰기에 비해서 일상과 예술 사이에서의 굴절(굴곡, 변이)점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학은 이 굴절점에 대해 탐색한다. 이 지점에서 언어는 소멸하면서 동시에 태어난다. 우리의 시대를 하나의 텍스트로 볼 때 머지않은 시대적 거리에서 가장 강렬한 변곡점을 드러낸 사건은 80년 5·18이다. 5·18에 대해 시학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이것을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언어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은 고대의 아름다운 시, 삶의 시적 정취에 기초한 “순진한” 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물질적 이해, 관리, 과학적 사고의 산문은 시와 신화, 그리고 공동생활의 태곳적 밀월을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헤겔의 영향 아래에서 공동체의 표현 형식으로서의 예술과 시는 과거의 것이라고 단언했다.¹⁴⁾

신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체는 태곳적 밀월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14) 자크 랑시에르, 같은 책, 35~36쪽.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 세계와 자신에 대한 태도도 태곳적 밀월에서 이미 배태된 것이라고 말하는 데 동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그때의 동시대성이 있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동시대성이 있다. ‘동시대성’의 측면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 태도의 시원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을 본 연구에서는 ‘80년 5월 광주에서 이루어졌던 열흘간의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다.

열흘의 공동체는 근대의 위력과 폐약, 위약과 위선이 충돌한 지점에서 열린 것이다. 사회·철학적 근대성의 목표는 ‘공동의 객체 구성’이다. 상대적으로 예술의 근대성의 목표는 ‘개별자의 객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근대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의 핵심에는 자기 갱신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원리는 현실 속에서는 남과 다르게 되기로, 내면에서는 또 다른 내가 되기로 작동한다.

오월광주와 관련한 연구에서 가장 미진한 것은 ‘언어’ 연구이다. 폭도로 낙인이 찍히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정당성의 회복, 명예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아예 초기에는 정당성의 획득, 명예의 회복은 고사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조차 가능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현장의 생생한 언어들은 열흘의 공동체와 함께 영영 침묵 속에 잠겨 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언어들의 그림자를 포착해야 할 문학 특히 서정시 역시 ‘정당성의 획득, 명예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는 데 전념하다 보니 ‘열흘의 공동체’의 언어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최정운 교수 역시 5·18의 담론과 관련된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열흘간에 이루어진 광주시민들의 담론이라고 말한다.

5·18 담론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시 열흘간에 이루어진

광주시민들의 담론이다. 이에 비하면 계엄사의 담화와 5·18을 해석하는 담론들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폭력적 사태를 맞아 투쟁하고, 동료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투쟁을 정당화하고,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는 언어들만 폭력적 현실과 기존의 우리 사회의 담론 구조의 제약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¹⁵⁾

‘열흘의 공동체’와 함께 사라진 ‘언어’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언어들에 가장 근접한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그 증언은 ‘절대 공동체’의 언어가 아니라 현실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증언하지 못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군사정부의 탄압은 차제하고 5·18 당사자나 목격자치고 언어의 좌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습에 ‘이게 꿈이야 생시냐’며 서로 껴안고 치를 떨며 울부짖었다.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엄청나서 말하려 하면 가슴의 응어리에 숨이 막히고, 담배를 몇 대를 피워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을 것이다. 어렵사리 꺼내고 나면 그 말은 너무나 싱거워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증언했지만 그들이 겪은 현실에 비해 언어는 너무나 싱겁고 왜소했으리라. 말은 초라한 배신자로 전락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규정하는 폭력적 언어 앞에 5·18의 경험은 찌그러지고 마는 것이 5·18 담론의 현실이다¹⁶⁾

최정운 교수는 여전히 ‘광주와 5·18은 고독과 침묵에 싸여 있다’고 말한다. 이 고독과 침묵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말로는 이 고독과 침묵을 건드릴 수조차 없었다. 고독과 침묵에 다가서서

15) 최정운, 같은 책, 90쪽.

16) 최정운, 같은 책, 28쪽.

공동체와 다변(알레고리의 담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열흘의 공동체를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사회로 간주할 수 있다. 다양한 기록을 통해 ‘오월의 언어’를 추출하고 시의 어조와 소설의 문체로까지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오월의 시학은 전통시학과 대위적인 자리에서 반시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정시는 ‘순수’에 대해 노래한다. 이 순수는 ‘때묻지 않는 순수’와 ‘빈틈 없이 때묻은 순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5·18의 불안과 공포, 부끄러움과 해방은 극단적인 두 순수 너머로 공동체를 이끈다.

이 밤은 순수한 밤이다. 그 밤은 본질적으로 불순하다. 그 밤은 말라르메가 하늘 너머 시적 하늘인 양 관조하는 공허라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그 밤은 진정한 밤이 아니고, 그 밤은 진리 없는 밤이다. 하지만 그 밤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이 아닌, 의의가 길을 잃은 혼돈이 아닌, 속이지 않는, 하지만 그곳으로부터 깨어날 수도 없는 그런 밤이다.

밤 속에서, 죽음을 발견하고, 망각에 이른다, 그러나 이 또 다른 밤은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이고, 망각 속의 휴식 없는 기억인 잊혀지지 않는 망각이다.¹⁷⁾

열흘 공동체의 마지막 새벽, 깊어진 어둠은 더욱 깊어져 더 이상 깊어질 것이 없는 데에까지 흐른다. 새벽에 감싸인 어둠은 너무 진해서, 어둠인 방아쇠를 감싼 검지로는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너무도 느린 그림 속으로 재빠르게 유리창을 넘는 그림자들! 이미 그들의 몸은 죽음을 지나 있었으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도 기억은 사라진다.

그런 중성의 밤, 절대적 순수의 밤을 지나온 기억 없는 기억의 언어가 원터로 작용한다. 기억할 수 없는 새로운 언어로 인해 문학은 새로운 글쓰기

17) 모리스 블랑쇼, 『문학공간』, 그린비, 2010, 238쪽.

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언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그 모색이 일정한 지향성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상징을 언어의 핵심적 구성 원리로 삼는 전통시학과는 달리 알레고리를 언어의 핵심 구성 원리로 삼는 것이 ‘반시학’의 특성 중 하나다. 알레고리의 방식은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풍자를 유발하지만, 언어의 구성 원리로서의 작용은 언어를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알레고리의 방식은 언어의 수행성, 역동성을 강조한다. 이를 촉발하는 언어 구성의 방식들을 포괄해서 ‘아포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포리즘은 아이러니, 반어, 역설, 모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언어의 구성 원리가 실재적인 차원의 연구 배경이 된다.

소위 오월문학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작품을 다룰 때는 문학성·예술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적 성취는 미약하지만 작가 정신, 시 정신, 주제 의식, 현실 참여 등은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문학 작품은 문학 작품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치 있는 작품이 미학적 성취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작품을 의심하지만 말고 예술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아울러 회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학을 모색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새로운 시학은 현실참여적인 시에 대한 시학·작·미학적 평가를 시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반시학적 탐색이 가능해진다면 기존의 시학적 탐색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문학 작품이 특정한 시대에만 작품의 효과를 인정받게 되면 ‘프로파간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시대와 함께 사적(史的)인 의미로만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을 문화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호출하고 그 효과를 재평가함은 물론 재창조할 수 있었어 할 것이다.

4. 언어적 행위의 위상성

의식의 흐름을 현상학의 빛으로 조명해 입체화한 철학자가 후설이다. 그는 시간의식, 의식시간을 함께 썼다. 의식으로서의 시간, 시간으로서의 의식을 인식작용의 측면에서 따로 보지 않는다. 의식이 시간(본질적 시간)의 흐름과 폭, 품을 만드는 과정을 ‘지향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가로 지향성은 시간의 객관성을, 세로 지향성은 시간의 주관성을 나타낸다. 본질적 시간과 맥락이 닿아 있는 현상학적 시간은 가로지향성과 세로지향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품(공간)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그의 전재(全裁)적인 통일성은 인식이 그의 목적으로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명하는 그런 전(前) 대상적 개체로서 세계를 인식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점이 후설이 행위의 지향성과 작용적 지향성을 구별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행위의 지향성은 우리들의 판단의 지향성이며,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위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지향성 즉 「순수이성비판」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일한 지향성이다. 작용적 지향성이란 우리의 욕구나 또는 가치 평가에 나타나게 되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에서 또렷이 나타나는 즉 객관적 지식에서 보다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지식이 세세한 언어로 번역하려 노력하는 그런 텍스트를 장식하고 있는 ‘자연적이고도 반서설적인 세계의 통일성과 우리들 생의 통일성을 낳은 지향성이다.’¹⁸⁾

행위의 지향성은 우리가 지각·감각할 수 있는 지향성이다. ‘의식류’에 ‘시적 순간’이 언어의 돌맹이로 던져진다. 시적 순간은 언어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의식류’의 표면에 파문을 남기고 가라앉는다. 이때 우리가 인식할 수

18) 모리스 메를로 폰티,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김진국 편역, 『문학현상학』, 대방출판사, 1983, 49쪽.

있는 것은 점점 퍼지며 흘러가는, 흐르면서 희미해져가는 파문들이다. 이것이 가로 지향성 즉 행위의 지향성이다.

표면의 흔적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의식의 깊이에 따라 ‘시적 순간’을 불러 일으킨 언어(사건)는 계속 가라앉는다. 가라앉으면서 의식류의 내면에 물살을 일으키고 기포를 만든다. 이 흔적(무늬)들 역시 흐르면서 점점 사라진다. 이것이 세로 지향성 즉 작용의 지향성이다. 작용(세로)과 행위(가로)가 상호 주관적으로 만나 열리는 것이 바로 ‘위상적 지향성’이다.

위상적 지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수사적 전략이 필요하다. “드 세르토는 부르디외의 저작에서 이론적으로 거의 통제 불가능한 실천의 다양성을 이론에 유용하게 만들어 개념적인 틀에 수렴하는 가운데 하나의 상호연관된 전체로 나타나게 만드는 수사적인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다.”¹⁹⁾ 이러한 수사적 전략이 한 개인과 같은 결속력을 지닌 ‘공동체’에서 가능했던 사건이 80년 오월광주에서 펼쳐졌다.

위상학적 지향성은 공간을 품고 흐르는 ‘시간류, 의식류’의 지향성이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엮고, 짜고, 묶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적 전략이 필요하다. 즉 의식 작용을 속성으로 하는 언어적 행위의 위상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의식류, 곧 의식시간의 흐름의 위상은 시간에서 공간으로 전회할 수 있다.

현상학의 경우, “전회적인 공간사유” 즉 “시간 구성에 상응하는 공간구성이 아니라, 시간 경험에 상응하는 ”공간 경험의 사유“로 호명되는 위상학적 태도의 전용을 통해, 그 동안 주/객관주의적 재현론과 실체론의 공간 개념에 의해 가려진 채 존재해 왔던 ‘장소’와 연관해 공간을 ”주체“의 실존론적 차원에서 숙고함으로써, 역사주의가 말하는 역사이성의 인간주의적 한계인 ‘형

19) 롤란트 리푸너, 「피에르 부르디외와 미셸드 세르토의 사회과학적 위상학」, 슈테판 권첵 엮음, 이기홍 옮김, 『토폴로지』, 에코리브로, 2010, 356-7쪽.

이상학적 주관의 인식론적 관념성 및 상대성'을 벗어나며 역사주의 철학(존재론과 인식론)을 '지양/극복'할 수 있는 정치한 논리의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²⁰⁾

논리적 토대의 확보 과정을 통해 시간 속의 공간, 공간 속의 시간이라는 위상학적 장소가 마련된다.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특정한 영역에서 규정되었던 개념의 언어들이 '욕망의 에너지'를 마음껏 풀어냄으로써 가능성으로 충만한 장소가 펼쳐진다. 다채로운 위상학적 지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욕망이 되는 말,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욕망에 자신을 맡기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칠 줄 모르게 긍정하는 것, 그것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표현을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것, 이것이 르네 사류가 “시는 욕망으로 남은 욕망의 실현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메아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앙드레 바르통은 말한다. “욕망, 그렇다, 언제나.”²¹⁾

메아리는 직접적인 목소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울려 퍼진다. 울리기 위해서는 더 크게 텅 비어 있어야 한다. 공허 속에 퍼지는 인간 욕망의 한 극단을 우리는 80년 오월 열흘의 공동체에서 경험한 바 있다.

80년 오월 열흘의 공동체가 보여준 가장 강렬한 욕망은 '사람다움'의 욕망이었다. 그들은 공수부대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집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부끄러움' 때문에 19일 시내로 몰려든다. 그리고 다시 27일 새벽,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청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끝내 승리를 깃발을 향해 걸 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언어가 없는 언어적 행위의 핵심이고, '광주정

20) 송석량, 「생활세계의 위상학과 일상사-역사주의의 극복과 재건을 위한 현상학적 연구 (1): '장소'의 존재론적 매개성에서」, 『해석학연구』 제36집, 한국해석학회, 2015, 325쪽.
21) 모리스 블랑쇼, 같은 책, 275쪽.

산'의 역동적 중심을 형성한다.

5. 광주 정신과 텍스트의 위상학

‘의복’은 상황에 따라 의미를 획득한다. 강의실에서의 복장과 해변에서의 복장은 다르다. 장소에 맞게 기대되는 옷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하나의 장르처럼 규정되어 스타일을 형성한다. 스타일은 고정되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변화한다.

텍스트는 그것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 있다는 것, 상호 텍스트 의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과거에 발터 벤야민이 “‘창조상’의 원리라는 이름의 생산적인 인격의 교만이라고 부른 것(그 기능에 의해 작가가 자신의 정신에 근거하여, 자신의 순수한 정신으로부터 작품을 만들어 낸다고 믿고 있는 것), 습관과 선례 그리고 수사 양식이 압박에 의해 사고 방식이 제한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인문학자들은 정치적·제도적·이데올로기적인 강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 저술가들 위에 적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²²⁾

작가는 잘 짜이고 풀리는, 장소를 이루는 하나의 이야기 선을 구성할 뿐이다. 이러한 선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진동하기) 위해서는 심화·고양을 통해 다양한 위상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소는 다양한 장소들의 겹침을 통해 다채로운 지향성을 획득한다.

‘장소의 정신’ 또는 장소의 ‘혼’, ‘장소감’, ‘장소의 분위기’ 등 특징이나 개

22) 에드워드 W.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17, 36쪽.

성을 말하는 용어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온 정체성의 속성이 그것이다. 분명히 장소의 정신은 장소의 지형과 외관,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활용,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 상황에서 유래한 특별한 의미들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장소의 정신은 단순히 이것들을 합친 것과 다르다. 장소의 정신은 정체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심각하게 변해도 지속될 수 있다.²³⁾

장소의 정신은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장소의 정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분위기는 직감할 수 있는 것이다. ‘장소의 정신’은 ‘장소감’으로서 우리들에게 직관적으로 통찰된다. 그러한 현실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몸이다. 광주의 정신, 오월의 정신은 어떤 심각한 현실적 변질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감’으로서 정신이다.

‘정신(精神, spirit)’이란 원래 관찰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는, 비가시적 초자연적 힘의 존재를 뜻하는 말이며 누구나 느끼고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는 보여줄 수도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는 불특정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는 보통 상징(象徴, Symbol)을 통해 표현된다. 그 ‘피’의 포괄적 상징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깨끗하고 맑은 피’를 만나게 된다. 바로 이 피야말로 피해를 당해 흘렸던 모든 피가 아니라 적극적 의식으로서 ‘5·18 정신’의 본질일 것이다.²⁴⁾

정신은 관찰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는, 비가시적 초자연적 힘의 존재를 뜻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느끼는 주체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신은 바로 주체의 ‘몸’이 감지하는 것이기

23)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15쪽.

24) 최정운, 「5·18 정신을 다시 찾아본다」, 『문학들』 46권, 문학들, 2016년 가을, 29-30쪽.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몸은 흐르는 몸이다. 의식이 흐르고, 본원적인 시간이 흐르고, 피가 흐름으로써 최선의 '공간'인 몸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80년 '오월광주'는 무기적 생명구조를 지닌 유기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장소감 혹은 장소의 질과 밀도를 다채롭게 함으로써, 공간은 그 생명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간은 위상학적 지각을 통해 객관 이상에서 주관화를 지속해서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상학과 자크 라캉식으로 수정된 정신분석에서 공간 위상학적 지각과 그것을 방해하는 주관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심리적 장 및 심리적 등록 데이터들의 조직화 징후로 타진되고 취급된다.”²⁵⁾

의식(시간)의 가로 지향성과 세로 지향성을 융합시키는 것은 '지각'의 역할이다. 쉬는 것은 작용이고 행위이다. 지각 공간, 감각 공간, 이해 공간의 상호 주관적 겹침과 밀침을 통해 행동 공간은 다양하게 개시한다.

지각공간은 즉자적인 필요와 실천이 중심이 되는 행동 공간이다. 그래서 이 공간은 매우 잘 발달된 구조가 있다. 이에 대해 F. 니취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각 공간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각하는 인간이다. 지각 공간은 인간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훌륭한 방향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지각 공간은 한계가 있으면 중립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지각 공간은 한정적이며 이질적이고, 주관적으로 정의되어 지각된다. 거리와 방향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 구조는 객관적, 계량적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²⁶⁾

25) 우테 홀, 「틈새와 장(場)-영화에서의 공간지각」, 슈테판 귄첼 엮음, 이기홍 옮김, 『토폴로지』 에코리브로, 2010, 110쪽.

26) 에드워드 랠프, 같은 책, 45쪽.

‘지각의 중심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다’는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계와 한정이 분명한 중심을 표시하지 않는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와 지향이 전부인 공간이다. 고요는 분위기이지 한정적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홀륭한 방향체계는 주관적 평가이다. ‘방향’은 태도로서 지향한다. ‘지각’은 방향성을 강하게 품은 힘을 갖는다. 이것이 하나의 장소가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가장 강력한 벡터를 갖는 장소가 80년 ‘오월광주’다. 오월광주의 벡터가 지닌 특성이다. 그 움직임이 무수한 길을 낸다는 데 있다. 그 길은 한 사람이 가도 꼭 차고, 인류 전체가 가도 넉넉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상학적 특성을 보인다.

6. ‘오월광주’의 장소화

장소가 획득한 이미지가 역동성을 잃으면 심상지리로 고착된다. 의미가 규정된 장소는 생명으로 약동하기 힘들다. 장소의 이미지는 위상학적일 필요가 있다. 위상학적이라고 것은 전방위적으로 축소와 확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공간에 바탕을 둔 장소의 이미지는 수직과 수평으로 구조화, 좌표화 되어 있다. “수직적인 구조는 경험의 강도와 깊이의 구조이며, 다양한 수준의 외부성과 내부성의 경험에 대응되는 층위들을 가지고 있다. 수평적 구조는 개인·집단·대중의 내부와 그들 상호간에 들어있는 장소에 대한 지식이 사회적 분포에 관한 것이다.”²⁷⁾

공간이 지닌 지평의 의미는 예전처럼 영향력이 크지 않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

27) 에드워드 랠프, 같은 책, 129쪽.

다. 땅의 가치는 이미 지평에서 위상으로 변화했다. 이런 위상적 변화를 경제 논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인간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우리는 공간 바탕의 장소에 시간 바탕의 장소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을 때 장소의 입체성과 유연성을 더할 수 있다. 시간화된 공간의 축은 가로 지향성에 경사되어 역사적 통시성을 형성한다. 공간화된 시간의 축은 세로 지향성에 경사되어 문화적 공시성을 형성한다. 이 둘의 역동적 통합을 통해 고정적이고 규정적인 위계적 공간을 흔들 수 있다. 공간에 능동적으로 개입해 장소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변곡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제프 말파스는 기억의 재현에 대한 ‘능동적 개입’은 자아 정체성의 강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프루스트의 경우를 들어 기억의 재현 문제에서 사람들이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은 호박에 갇힌 곤충들처럼 불면의 공간이나 위치에 붙들려 있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기억이 묶인 장소에서 걸어 나와 좀 더 현대적인 배경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흔히 하나의 장소를 추구한다는 견지에서 제시된 자아정체성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²⁸⁾ 우리가 걸어들어 오는 시간에 따라 장소 기억은 다채롭게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찾을 수 있는 시간은 곧 ‘장소화된 시간’이다. 장소를 추구하는 것은 시간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의 시간에서 ‘호박밭’처럼 간직된 이야기를 찾고 발굴하는 것이다. 미래에서 발굴되는 시간 - 시간의 지향성은 모두에게 같은 공간으로 주어진다. 그 공간이 이야기로 수놓아질 때 저마다의 장소가 된다. 텍스트의 공간은 공간이면서 장소이고, 장소이면서 시간이고, 시간이면서 공간이다.

28) 제프 말파스,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로, 2014, 231쪽.

이푸 투안은 인간은 자연의 기하학적 패턴들을 분별할 뿐 아니라 마음 속에 추상적 공간을 만든다고 말한다. 마음 속에 만들어내는 추상적 공간은 언어적 공간이다. 이 언어적 공간은 일종의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은 그들의 느낌, 이미지, 사유를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려고 한다. 공적이고 물질적인 물상화에 이르는 진보의 발생은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²⁹⁾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내-존재라고 규정한다. ‘내’에 대한 해석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 세계 속의 존재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내’를 ‘상황’으로 풀이한 이는 사르트르다. 상황은 시간의 서사와 공간의 미장센이 결합된 장면의 의미가 강하다. 우리가 사랑의 장면, 이별의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은 사랑의 수만큼, 이별의 수만큼 많고 다양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을 혹은 이별을 직감하고 읽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상황의 존재 양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내’는 상황 곧 양식으로서 플롯이 작동하는 의미의 장이다. 장소를 장악한다는 것은 곧 그 장소에 작동하는 플롯을 주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비진정성이 이 산업화된 대중 사회에서 지배적인 존재 양식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며, 사회·경제·물리적 형태를 띤 대중적 가치관이나 비인격적인 계획이 이러한 비진정성의 강력한 표현임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경험 속에서 그리고 장소나 경관의 외관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³⁰⁾

역사적 사실은 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반면 미적 진실은 내면으로부터

29)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36쪽.

30) 에드워드 렐프, 같은 책, 182쪽.

터 발현한 것이다. 진정성은 둘의 상호주관적 작용이 이루어지는 플롯의 위상성에서 작동한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저마다의 삶을 파도의 가치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비진정성’의 영역이 된다. 이 파도를 일정한 무늬로 부서지게 만들고, 미세하게 파도가 움직여가는 해안선은 규정성의 가치이다. 이 둘의 능동적인 작용에서 우리는 위상적 플롯이 지닌 진정성의 가치 곧 ‘함께와 따로’의 동시적 실현이 가능한 장소를 개시할 수 있다.

그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없고, 그들은 여행 수첩을 남기지 않으며, 그들은 이름 없는 익명의 군중 속의 익명의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것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이러한 걸음을? 왜 중요성이 없는 것을 향한 이러한 희망없는 움직임일까?³¹⁾

죽음을 통과한 산 자, 삶을 통과한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 죽어서 산자와 살아서 죽은 자 등이 모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양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동부전선의 참호에서 4주를 보낸 독일의 음악가이다. 그는 6개월 뒤 1915년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당시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렇게 변호했다. “(내가) 전장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특이하게도 그들의 기억은 시간과 공간의 가치에 대해 신기할 정도로 무관심했다.”³²⁾ 이야기를 벗어난 사건들이 더러 있다. 5·18은 이러한 특성을 보인 대표적인 텍스트다. ‘열흘 공동체’의 서사적 결말은 죽음이었다.

5월 27일 새벽 엄청난 병력의 계엄군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광주시와 전남

31) 모리스 블랑쇼, 같은 책, 249쪽.

32) 스티븐 킨,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humanist, 2004, 678쪽.

도청으로 재진입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그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시내에 특히 도청에서 어떤 자세로라도 총을 들고 있다면 죽을 것을 알았지만 200명 전후의 젊은이들이-정확한 숫자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 총을 들고 도청 건물을 지키고 있었던, 대부분 당시에 목숨을 잃었는지 잡혀가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 살기 위해 집에 돌아갈 것을 종용했지만, 그들은 완강했고, 그들의 명분과 동기는 어른들도 수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들이 거기 있었을까?”³³⁾

여기에 대한 답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의 정서와 감정의 특별한 경계를 지나는 ‘행위’를 여전히 언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마치 실패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성공하기를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마치 우리가 무의미한 것, 비본질적인 것, 실수라 부르는 것은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유감없이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 모든 본래성의 원천으로 드러날 수 있듯이.³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 필연적으로 지는 싸움에 뛰어든 사람들을 상식에 기반을 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싸움, 이기는 싸움이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지도 모를,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치르고 만신창이로 돌아와 지고서야, 끝내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다. 무수한 사태들의 겹침, 특별한 시공간의 변곡이 ‘오월광주’, ‘광주오월’의 장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33) 최정운(2016), 같은 글, 28-29쪽.

34) 모리스 블랑쇼, 같은 책, 254쪽.

7. 결론

80년 광주의 오월과 관련된 담론의 장은 주로 이론과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었다. 담론은 정치적 긴장 관계에 있었다. 정치적, 대립구도 속에서 담론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독자나 청자의 위치에서 지켜보는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시민들의 관심은 줄었다. 생산적인 동력을 상실한 정치 위주의 담론이 문화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오월광주’를 능동적으로 장소화 하고,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포에톨로지’에 주목하게 된다.

‘함께이면서 따로’ ‘따로이면서 함께’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형성하는 장소를 통해 새로운 장소(언어)를 직조하고, 모전하는 것이 ‘포에톨로지’이다. ‘포에톨로지 ‘오월광주’에서는 공간을 생산하는 공간, 언어를 생산하는 언어로서 ‘오월광주’의 가능성을 살폈다. 이러한 포에톨로지가 가장 입체적이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거대하게 펼쳐질 수 있는 최초의 장소, 마지막 장소가 ‘오월광주’임을 분명히 했다.

오월 시학의 토대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한 후, 오월 시학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했다. ‘오월 광주’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이 언어 연구임을 지적했다. 열흘의 공동체와 함께 사라진 언어에 접근하기 위해서 오월 시학은 기존 시학의 대위적이 자리에서 ‘반시학’으로 자리해야 한다.

이러한 시학적 지향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언어적 전략이 필요하다. ‘언어적 행위의 위상성’에서는 오월의 언어가 ‘얹’이며 ‘함’인 수행의 언어임을 강조했다. 언어의 수행성을 통력으로 현실 너머로 지향할 수 있는 글쓰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안한 위상적 글쓰기는 구조를 넘어서는 글쓰기이다. 오월광주는 정치적 사건에서 언어적 사건을 변곡할 필요가 있다.

‘광주 정신과 텍스트의 위상학’에서는 위상학적 장소의 심연을 흐르는 것이 정신이라고 전제했다. ‘광주정신’은 어떤 역사적인 왜곡과 질곡 그리고 시선의 변화에도 그 심연을 도도히 흘러왔다. 이 정신의 힘은 일정한 지향성을 지니는 데, 이것이 문화의 벡터를 형성한다. 흐름을 본연으로 삼을 때, 광주의 정신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이 플롯을 통해 양식화할 때, 다채로운 이야기는 한결같은 지향을 갖고, 하나의 정신은 다채로운 삶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오월광주’의 장소화에서는 오월광주의 사태성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장소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오월의 시학에 접근하는 동력은 ‘언어의 행위’ 곧 강력한 의식류의 발생에서 얻을 수 있다. 언어적 행위는 주관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의 통합적 지향을 통해 경험적 진실을 획득한다. 이렇게 열린 의미의 지평을 입체화할 때 우리는 위상학적 장소를 획득할 수 있다.

‘열흘의 공동체’라는 특별한 공동체다. 사라진 언어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 언어에 최대한 접근하고, 그 언어의 재현을 시도하는 것이 ‘오월 시학’의 역할이다. ‘오월 시학’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을 예비하는 성격의 글이다. ‘포에톨로지’는 오월시학의 원리이자 지향으로 삼을 수 있다. ‘오월 시학’의 면모가 ‘오월 광주’의 ‘포에톨로지’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 2019. 2. 27. 심사기간 : 2019. 3. 6.~3. 25. 게재확정일 : 2019. 3. 26.

| 참고문헌

- 다비드 폰텐, 『시학』, 동문선, 2001.
- 롤란트 리푸너, 「피에르 부리디와와 미셸드 세르토의 사회과학적 위상학」, 슈테판
귄첼 엮음, 이기홍 옮김, 『토폴로지』, 에코리브로, 2010.
- 마르틴 하이데거, 「윌터린과 시의 본질」, 김진국 편역, 『문학현상학』, 대방출판사,
1983.
- 모리스 메를로 폰티,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김진국 편역, 『문학현상학』, 대방출
판사, 1983.
- 모리스 블랑쇼, 『문학공간』, 그린비, 2010.
- 블라디미르 벨민스키, 「괴니히스베르트의 다리 -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공간 포에
톨로지」, 슈테판 귄첼 엮음, 『토폴로지』, 에코리브로, 2010.
- 송석량, 「생활세계의 위상학과 일상사-역사주의의 극복과 재건을 위한 현상학적
연구(1): ‘장소’의 존재론적 매개성에서」, 『해석학연구』 제36집, 한국해석
학회, 2015.
- 스티븐 킨,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humanist, 2004.
- 에드워드 W.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17.
- 에드워드 랠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우테 홀, 「틈새와 장(場)-영화에서의 공간지각」, 슈테판 귄첼 엮음, 이기홍 옮김,
『토폴로지』 에코리브로, 2010.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 제프 말파스,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로, 2014.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2005.
- _____, 「5·18 정산을 다시 찾아본다」, 『문학들』 46권, 문학들, 2016년 가을.
- 크누트 에벨링, 「‘현장’-공간철학에서 장소이론으로」, 슈테판 귄첼 엮음, 『토폴로
지』, 에코리브로, 2010.
-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진리와 방법 I』, 문학동네, 2011.
- 현사연, 『5·18 사료』, 1990a.

The May-Poetics and Poetology of ‘May Gwang-ju’

Jeon, Dong-jin

‘May Gwangju’ is a topological name that combines ‘May’ of time with ‘Gwangju’ of space. ‘The ten days community’ of ‘May Gwangju’ was an absolute community. Language of an absolute community was also the first appearance, and poetics was bound to be new. The sad thing was that language had also disappeared from reality with the ten days of community.

The language of May is not the same means of human communication as we already know. It is not the language of purpose that lyric poetry pursues. The language itself is a language of practice that is 'knowing' and 'being'. It is necessary to try writing that can be directed beyond reality by using the performance of language as a motive power.

So I proposed topological writing. Topological writing is writing beyond structure. May Gwangju needs to distort verbal events in political events. In the past, We have gathered strength to uncover the reality truth, fact. Now it is time to secure a variety of aesthetic truths.

It is impossible to restore the language of May. However, no one can deny the reality of the ten days community. We must try to comprehend the language of May in various dimensions. In the meantime, we should explore the aspect of May poetics as a anti-poetics in the contrapuntal position of traditional poetry.

The power of approaching the May-poetics can be derived from the ‘act of language’, the emergence of powerful consciousness. Linguistic action acquires empirical truth through the integrated orientation of subjective truth and objective fact. We can acquire a topological place when we solidify this open horizon of meaning.

It is the spirit that flows in the depths of topological places. The 'spirit of Gwangju' has also flowed into a change of some historical distortions, vagaries and gaze. The power of the spirit flows smoothly through the directionality. When the flexibility of Gwangju spirit is stylized through the

plot, colorful stories have a uniform orientation, and one spirit can spread into a colorful life.

It is poetology that weaves and worsens a new place (language) through the place (language) formed by colorful stories spreading 'together and apart' 'apart and together'. The most stereoscopic, three-dimensional, the most delicate, and the most gigantic place of spreading is 'May Gwangju' as poetology.

Keywords : poetology, May Gwangju, the May-poetics, Gwangju spirit, topological place, topology, the ten days community, act of language, anti-poetics, the language of May

